

MBC 주말특별기획 '돈꽃' 제작기

‘돈꽃’ 조명 제작 후기

최근 요구되는 드라마 조명 환경

지상파 드라마의 제작방식은 조명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만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있다. 외국에서는 로케이션과 스튜디오를 한 명의 조명감독이 모두 커버하지만 한국에서는 로케이션과 스튜디오 담당 조명감독이 다르다. 그러니 로케이션과 스튜디오 조명 느낌이 같으면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드라마에 몰두하고 싶은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옳지 않은 방식이다.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작시간 부족과 한정된 예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스튜디오에서는 풀샷과 타이트샷을 동시에 녹화하는 3~5개의 카메라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조명환경이 있어 디테일에서는 로케이션을 따라가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기에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동 시간에 많게는 5편의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시청률 전쟁이며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드라마가 모든 것(시청률, 화제성, 광고 등)을 다 갖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다. 그래서 TVN, JTBC, OCN과 같은 채널에서는 스타작가, 스타피디, 그리고 스타연기자로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숙련된 영화 스태프들을 앞세워 고품질의 영상미로 시청자를 매료시키고 있다. 그래서 요즘 종편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는 영화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여기에 MBC도 긴장을 하고 UHD 카메라 도입과 LED 조명 등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제작 시스템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돈꽃’ 조명 조명기획

‘돈꽃’ 드라마는 돈을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에 살지만 실은 돈에 먹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주인공 필주(장혁)는 장손으로 태어났지만 혼외자라는 이유로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복수를 그린 드라마로 재벌의 어두운 뒷모습과 음모, 불륜, 정경 유착 등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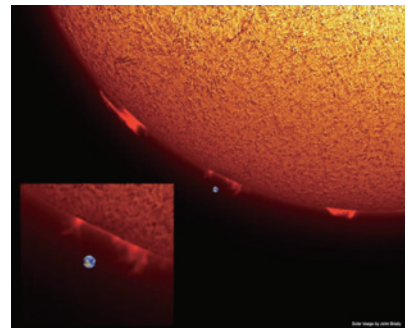
이런 드라마에는 High Key보다는 그림자가 있고 콘트라스트가 있지만 아이라이트가 잘 드러나도록 하는 Low Key가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PD가 극타이트샷을 선호했던 터라 표정 연기를 위해 아이라이트를 최대한 가능토록 노력했다.

PD가 선호하는 조명의 방향도 분명했다. 일반적으로 지상파 연속극의 조명은 우리나라처럼 밝은 거실에서 보는 시청자들이 편히 볼 수 있도록 풀샷과 타이트샷 모두 화면에 어두운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돈꽃’ 김희원 PD는 시청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사실적인 조명을 원했으며 세트에 가는 조명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조명을 위해서라면 녹화시간이 늦어지더라도 TAKE(1번에 카메라 위치와 앵글을 바꾸는 행위)수를 늘려야 했으며 연기자들이 같은 씬을 반복해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적인 조명은 어떤 빛의 느낌인가? 부드럽고 소프트한 빛이며 사실주의 표현에 있어 핵심적인 빛의 질감이다. 실제 주위를 둘러보면 자연광인 태양광만이 Hard edge(음영의 경계)를 만들어내고 대부분 현대건물의 실내 광원들은 형광등이나 반사조명으로 Soft edge를 만들어내는 소프트한 빛이다. 그래서 실내 위주인 스튜디오에서 사실적인 표현을 원한다면 소프트한 빛은 필수 불가결하다. 소프트한 빛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주로 우드락 반사판, LED 장비, 빛차단고보 등의 로케이션에 주로 사용하던 조명장비를 스튜디오에 적용했으며 시청자들이 인위적인 조명의 실체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여기에서 핵심은 피사체(연기자)가 바라봤을 때 광원이 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명장비의 광원면적이 넓어야 하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조명장비가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소프트한 빛의 질감이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다음 예시된 [그림 1]과 [표 1]을 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피사체(자동차) 기준으로 광원은 2배 정도 크지만 거리가 가까워 상대적으로 광원면적이 넓어 보이며 소프트한 조명 질감을 나타낸다.
출처 : roadtest.co.kr/domestic_view.php?bid=825



피사체(지구)를 기준으로 광원(태양)은 109배 크기만 거리가 멀어 그림자 윤곽이 뚜렷한 Hard edge를 만들어내는 조명 질감을 나타낸다. / 출처 : sarcasmlol.com/2016/12/01/pictures-reassess-existence/3/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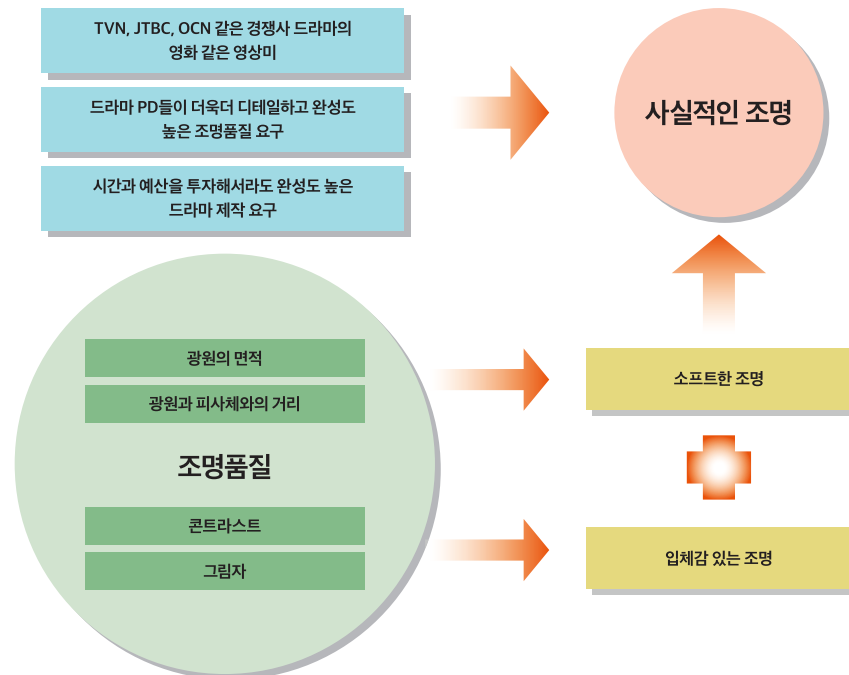


표 1.

‘돈꽃’ 제작환경

카메라 및 영상시스템

SONY PMW-F55 UHD 카메라 4대를 사용했고 3840×2160 59.94p UHD로 촬영하고 CCU 1920×1080 29.97p HD 출력을 녹화했다. Gamma curve 경우에는 로케이션은 S-log3로 스튜디오는 S-log3와 똑같은 USER gamma를 만들어 로케이션과 스튜디오의 영상 차이를 최소화했다. 녹화방식은 HD eXerver 장비에서 레코딩(코덱 : DN×HD 220X) 후 미디어 스테이션 전송 및 편집했다. 이런 카메라 시스템에서 평균 인물조도는 50~100lux 만으로도 원하는 영상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 스트레스 없이 녹화를 가능하게 했다.

제작 순서

	스튜디오 (123 카메라시스템)	스튜디오 (돈꽃 시스템)	스튜디오 (로케이션 시스템)
	조명설치(多), 조명포커스 약 4시간 이상	조명설치(中), 조명포커스 약 3시간	조명설치(少), 조명포커스 1시간 미만
리허설	당일 녹화선 전체 진행 - 이미 대본에 나온 카메라샷으로 진행 - Take션 거의 없음 - PD와 스텝들의 소통 많지 않음	당일 녹화선 전체 진행 - 대본에 카메라샷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서 추가되거나 카메라감독의 의견을 수렴해 바뀌는 경우가 많음 - 대부분 씬 TAKE 있음 - TAKE에 따라 카메라 샷 결정 → 조명장비 및 위치 결정 - PD와 스텝뿐만 아니라 연기자와의 소통 많음	없음
리허설 직후	- 조명 변화 거의 없음.	- 추가 조명장비 설치 및 위치 변경 과정이 많음	
1씬 녹화 과정	- TAKE없으니 중단 없이 1씬 런스루 녹화	- 예정된 TAKE 대로 카메라 설치와 동시에 예정된 조명장비 설치 - 영상감독과 협의 하에 조명 컨트롤 - TAKE별 반복후 1씬 녹화 끝남	- TAKE 결정(PD와 협의) - 카메라 설치와 동시에 조명장비 설치 - 카메라감독과 협의하에 조명 컨트롤 - TAKE별 반복후 1씬 녹화 끝
종합 의견	-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량의 씬을 녹화할 수 있음	- 123 카메라 시스템과 로케이션 시스템의 장점을 살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좋은 영상을 얻으면서도 녹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최대한 좋은 품질의 조명 및 영상을 만들 수 있음

‘돈꽃’ 제작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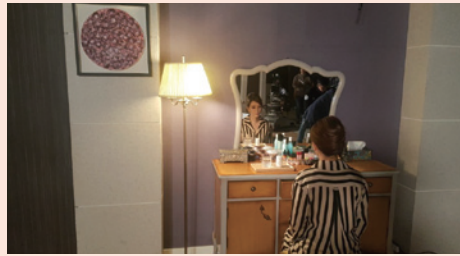
1씬 끊김 없이 녹화할 때에는 풀샷과 타이트샷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명시스템이 직접 이렇게 조명장비를 움직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명 모노포드(Monopod)라고 불리는 봉대에 LED 장비를 연결해 풀샷에서는 올렸다가 타이트샷에서는 내려서 연기자와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 소프트한 조명 질감을 얻고 사실적인 조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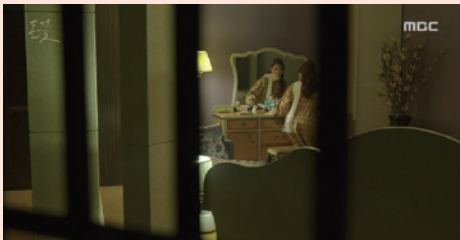
타이트샷에서 소프트한 조명 질감을 극대화위해서는 우드락 반사판을 주로 이용했으며 했다. 할로겐 1kw 장비 또는 8W LED 장비를 주로 사용했다.



창문에 들어가는 빛을 직접 투사하지 않고 반사를 이용해 소프트하게 인물에 드리우도록 했다. 풀샷에서는 커튼이 닫혀져 있고 타이트샷에서는 창문을 열고 카메라를 설치 하기 때문에 빛의 연결을 위해 이런 방식을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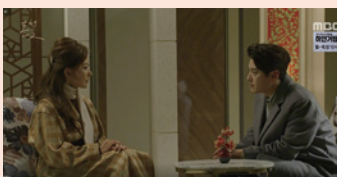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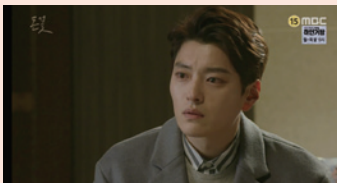


현장



방송

전등갓에는 필라멘트 전구가 아니라 LED 장비가 숨어져 있다. 세트로 가는 빛보다 인물로 가는 빛을 강하게 만들어 풀샷에서의 콘트라스트를 주기 위해서다.



방송

현장



방송



현장



방송



현장

‘돈꽃’ 조명 결론

‘돈꽃’ 종영 후에 연기자 및 스태프들 모두 제주도로 포상휴가를 떠났고 극본을 쓴 이명희 작가와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대본을 쓸 때 스튜디오 분량을 축소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로케이션보다 영상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드라마는 스튜디오 완성도에 만족하며 거부감 없이 스토리를 썼다고 한다. 이런 완성도에서는 조명만이 잘해서만이 결코 아니며 연출, 카메라감독, 영상감독, 연기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호흡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돈꽃’을 통해 더욱 더 실감하게 되었다.

‘돈꽃’에 관한 기사를 보고 공통된 부분이 많다. 막장요소(출생비밀, 불륜, 복수)가 있음에도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호연, 그리고 고급스러운 연출과 편집으로 웰메이드 드라마가 탄생되었다고 한다. 조명감독으로서 ‘막장요소’라는 의미에 몰입이 안 되는 조명도 감히 포함시키고 싶고 ‘웰메이드’라는 의미에 좋은 조명도 감히 포함시키고 싶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악조건을 갖춘 카메라 123 시스템의 스튜디오 녹화이지만 좋은 조명이 많아져서 로케이션과 화면이 번갈아 편집되더라도 어색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으며 그 경계선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과 예산의 경제성을 갖춘 ‘돈꽃’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앞으로 4K, 8K 카메라를 사용될 모든 지상파 드라마 제작에 보편화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